

#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와 지역농업 구축

농업생산 적절유지·농가 소득증대, '지역농업 구축'으로 해결 가능  
지역농업 확립, 전업농 생산자 농협 농민단체 등 역할 따라 성패 좌우

**현** 재 세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여 다자간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이에 추가하여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하여 양자간 시장개방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 개방과 농업에 대한 보호감축 등에 의해 우리나라 농업은 생산 감소와 가격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동시에 수출 등 새로운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생산의 적절한 유지와 농가의 소득 증대가 농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서 '지역농업 구축'이라는 접근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농업여건 변화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2006년 타결, 2007년 국내 비준, 2008년 실행이 예상되는 일정이다. 어쨌든 DDA 타결 이후,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보호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DDA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각국은 양자간의 시장개방인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세계적으로는 북미, EU,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 칠레, 싱가포르와 체결하였으며 일본, 아세안 등 2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WTO 출범이후, 세계 곡물수급에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는 1인당 소

비량과 총 인구 증가에 의해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은 단수와 기상조건에 의해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곡물수입 증가가 세계 곡물시장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쌀 협상이후 쌀 추가적인 시장개방도 불가피하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되, 의무수입물량(MMA)을 종전의 4%에서 7.96%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이중 시판을 초년도 10%에서 6년째 30%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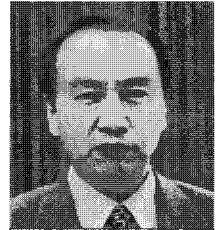
### 과제와 해결방향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축소와 농가소득 감소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농업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농업이 활성화 하고 있는 지역은 농산물 생산 활동만이 아니라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농가 민박, 도농 교류 등 농업을 복합산업화 하고 있는 지역이다.

농업의 복합산업화란 농업이라는 1차 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과 같은 2차 산업,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경영 등 3차 산업을 '특정지역'을 무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이 주체가 되어 농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확대하여 소득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지역을 단위로 농업생산자가 적극적으로

로 2차 산업, 3차 산업의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 고용기회 확대로 파급되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이며, 이를 위해 지역농업 구축이 필요하다.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분석팀장

### 지역농업의 역할

지역농업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농업이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의 환경보전형 농업을 구축해 나가고, 일정 수준의 식량자급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방향이다.

환경보전형 농업은 농민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식품과 농업, 환경,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지역의 다른 산업이나 기업, 교육에 관여하는 학교관계자 등과의 연대와 상생 등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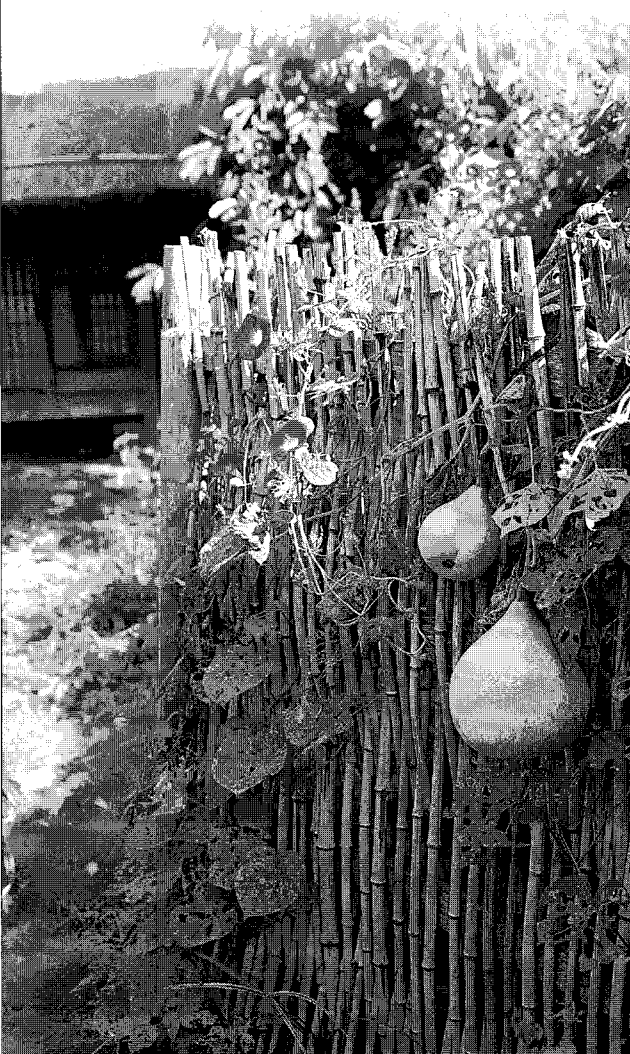
지역시장이 형성되면 여기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만나는 관계, 매매되는 상품에 값이 매겨지는 가격형성 관계, 그리고 상품과 가격이 교환되는 교환관계가 형성된다. 이것이 시장의 원형이다. 이러한 시장의 원형이 지역 내에서 직판장이라는 형태로 형성된다.

결과로 도매시장을 경유한 판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유통경비의 대부분이 불

**농업의 부가가치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역농업의 확립이다.**

**지역농업은 지역가공과 지역유통이 결합되어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농업, 농촌 마케팅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지역별 목표를 정해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 지역전체의 협력 속에서 실행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해지며, 이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고객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지역고유의 특산품 판매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가까운 곳에서 실현할 수 있다. 지역에 있는 자연, 산업, 식문화, 시설, 인재 등 지역자원을 살린 지역개성이 발휘된다. 이것과 직판장이 결합되어 안정된 고객층을 형성하게 되고, 경쟁이 적은 시장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지역에서 창출한 각종 지역 비즈니스와의 연계도 부가가치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지역농업의 구축전략

지역농업의 기본적인 범위는 시군(기초 자치단체)으로 하고, 2차적인 범위는 시도(광역 자치단체)가 바람직하다. 지역단위가 명확해지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나 관계, 지역간 연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지역의 생산, 소비, 유통에 활기를 가져오는 것은 교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산지직송, 도매유통 등 외부에 대한 광역유통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지역농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브랜드 형성이 불가결하다. 지역브랜드는 품질 좋은 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가공에 대한 노력, 그리고 교류활동과의 연계 등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매력 있는 상품으로

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또 생산자의 꿈과 가치관, 비전 등을 담아야만 좋은 브랜드가 만들어진다. 농작물의 경우 특히 지역명이 중요하다. 지역브랜드가 형성되면 그 지역에서의 유리한 판매 뿐 아니라, 다음에 언급하는 지역 유통에서 유리한 판매와 고부가가치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

농산물의 유통채널은 기존의 도매시장과 지역 판매장, 슈퍼마켓이나 가공업자·소비자에 대한 산지직송, 지역내 유통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지역판매장 및 슈퍼마켓이나 가공업자·소비자에 대한 산지직송, 지역내 유통 등이 지역유통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평가 받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를 지역브랜드로 위상을 높여서 도매업자와의 거래에 응할 힘을 갖춰 나간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리한 판매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지역유통 채널에서는 학교급식, 병원급식, 직장급식 등의 재료 제공 등을 비롯하여, 지역내 각종 식당, 호텔, 레저시설 등에 재료 제공, 지역 식품가공업자에 대한 원료 제공, 그리고 지역의 각종 식품 판매점에서의 지역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업종의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역특산품의 가공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한 기본적으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농가소

득 향상과 의욕고취에 기여하는 면이 크다. 예를 들어, 지역산 대두에 의한 두부나 된장 제조, 지역산 쌀로 발효현미 제조, 지역산 밀에 의한 우동 제조 등 지역가공의 효과를 최우선으로 하고, 또한 외부에 대한 판매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특산품 가공은 직판장에서 다양한 품목을 갖추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한 지역브랜드 형성에도 기여하는 면이 강하다.

### ‘적정계획 수립·인재 양성’ 성공열쇠

농업의 부가가치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역농업의 확립이다. 지역농업은 지역가공과 지역유통이 결합되어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농업, 농촌 마케팅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지역별 목표를 정해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 지역전체의 협력 속에서 실행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추진 주체이다.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전업농을 비롯한 고령자 등 생산자, 부락, 지자체, 농협, 농민단체, 기업 등이 있다. 이러한 주체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성패는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첫째는 지역 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둘째는 추진 주체로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Y